국립공원 특별 사진전

한국에서 탄생한 이름 in 어승

National Park, Korea's Best Idea

찰나에서 영원으로 in 오송

National Park, Korea's Best Idea

자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숨결을 온전히 듣기 위해선 오랜 시간의 침묵과 기다림이 필요했다. 이번 전시는 국립공원 사진공모전을 통해 쌓아온 수상작들을 모아, 한국의 국립공원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한 자리이다.

<찰나에서 영원으로>는 '찰나가 영원을 이룬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사진 속 한 줄기 빛은 산의 숨결이 되고, 계절의 흔적은 삶의 기억이 된다. 이 전시는 그런 시간의 여운을 따라, 잊고 있던 자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한다. 찰나, 우리는 생명과 시간, 사람과 자연이 함께 써 내려온 존재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찰나에서 영원으로>는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

자연의 숨결 : 한국의 국립공원

장엄한 산세와 푸른바다, 깎아지른 절벽과 고요한 숲길이 사계절 속에 모습을 드러낸다. 찰나의 순간마다 자연은 고요히 호흡하며, 그 고요한 숨결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2

숨쉬는 식물의 리듬 : 한국의 나무와 꽃

나무와 꽃은 대지의 숨결을 받고 내쉬며 계절의 시간 속에서 인간보다 더 오래, 더 느리게, 더 정확한 리듬으로 살아간다. 빛과 온도, 바람과 물의 리듬 속에서 그들은 시간의 형태를 빚어낸다.

3

생명과 문명의 울림 : 사람과 동물 그리고 문화재

국립공원은 생명과 문명이 공존하는 거대한 자연의 무대이다.
전시작품은 국립공원이 단순히 경관의 장소가 아닌 치유와 회복,
그리고 행복의 공간임을 말하고 있다.

1

자연의 숨결 :

한 국 의　국 립 공 원

이 전시는 '자연의 숨결'을 다시 들려주며 긴 시간의 관찰과 기다림으로 완성된, 한국 국립공원의 자연에 대한 기록이자 헌사이다. 사진가는 카메라를 들고 한국의 국립공원을 오르내리며, 사계절의 호흡과 빛의 결을 포착했다. 지리산의 장엄한 능선, 월악산의 기암괴석이 품은 신비, 월출산의 안개 낀 새벽, 설악산의 봉우리, 계룡산의 고요한 숲, 가야산의 황혼빛 바위까지 이 모든 장면은 한반도의 시간을 품은 자연의 초상이다.

전시는 새벽의 일출로 문을 연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 불린 이 땅의 첫 빛이, 산의 윤곽을 드러내며 관람자를 천천히 자연의 품으로 이끈다. 이어지는 폭포와 계곡, 해안과 섬의 풍경은 대지의 맥박과 바다의 숨소리를 들려준다. 변산반도와 한려해상의 장면들은 육지와 바다가 맞닿는 경계에서 발견한 생명의 리듬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국립공원의 사계절이 펼쳐진다. 봄의 연두, 여름의 녹음,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이 하나의 순환으로 이어지며, 그 안에서 인간의 삶 또한 자연의 일부임을 일깨운다.

'자연의 숨결'은 단지 풍경의 재현이 아니다. 이는 기다림의 미학이며, 자연과 인간이 맺은 오래된 대화의 흔적이다. 이 전시는 그 대화를 이어 듣는 자리이자, 우리가 잃어버린 조용한 경이로움을 되찾는 순간이다.



소백산의 야생화 | **고동주**

소백산국립공원 Sobaeksan National Park



계룡산 전경 | **이상헌**

계룡산국립공원 Gyeryongsan National Park



월출의 아침 | **김광석**

월출산국립공원 Wolchulsan National Park



달빛의 설천봉 전경 | **이윤옥**

덕유산국립공원 Deogyusan National Park



계곡의 미 | **송면호**

지리산국립공원 Jirisan National Park



승천 | **권영덕**

설악산국립공원 Seoraksan National Park



노고단 새벽 | **윤석기**

지리산국립공원 Jirisan National Park



월악산의 아침 | **박영기**

월악산국립공원 Woraksan National Park



희운각의 아침 | **박순기**

설악산국립공원 Seoraksan National Park



향적봉에서 본 파노라마 설경 | **방호석**

덕유산국립공원 Deogyusan National Park

2

숨쉬는 식물의 리듬 :

한국의 나무와 꽃

국립공원의 나무와 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다. 그들은 대지의 숨결을 받고 내쉬며, 계절의 시간 속에서 인간보다 더 오래, 더 느리게, 더 정확한 리듬으로 살아간다.

경주 왕릉의 소나무는 천 년의 시간을 굽어본다. 바람에 몸을 맡긴 채, 인간의 역사와 신화를 함께 품은 이 나무는 국토의 정신을 상징한다. 지리산의 바래봉 철쭉은 봄마다 능선을 물들이며, 순환하는 생명의 약속을 새긴다. 철쭉의 붉은 결은 단지 색이 아니라, 산과 구름, 새벽 안개가 엮어낸 리듬의 파동이다. 한라산 서나무 숲은 해풍에 몸을 비틀며 생의 의지를 조각한다. 그 곁의 복수초는 눈을 뚫고 피어나, 겨울의 침묵 속에서 가장 먼저 봄의 맥박을 일깨운다.

설악산의 진달래와 솜다리는 암석 틈에 뿌리를 내리고, 바람과 함께 피었다 진다. 그 연약함 속의 강인함이야말로 이 땅의 자연이 가진 진정한 생명력이다. 월출산의 억새와 계요등, 그리고 소백산의 산수유 고드름은 서로 다른 계절의 언어로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빛과 온도, 바람과 물의 리듬 속에서 그들은 시간의 형태를 빚어낸다. 한려해상의 참나리, 오대산의 흰털잎술잔버섯과 앵두낙엽버섯, 지리산의 이끼살이버섯은 숲의 보이지 않는 호흡을 드러내며, 생태계의 미세한 균형을 증언한다.

한국의 국립공원은 거대한 유기체이다. 나무는 폐처럼 공기를 들이마시고, 꽃은 심장처럼 계절을 순환시킨다. 작품들은 그 유기체의 내면에 귀 기울이게 한다. 인간의 시선이 닿기 어려운 숲의 안쪽, 이끼와 바람이 대화하는 공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숨'의 의미를 되새긴다.



진달래가 있는 설악의 봄 | **안충호**

설악산국립공원 Seoraksan National Park



서나무숲의 서정 | **정수미**

한라산국립공원 Hallasan National Park



여름 | **김석철**

내장산국립공원 Naejangsan National Park



바래봉의 철쭉 | **박종수**

지리산국립공원 Jirisan National Park



지리산 범꼬리꽃 | **정재문**

지리산국립공원 Jirisan National Park



억새 | **이경선**

월출산국립공원 Wolchulsan National Park



왕릉의 소나무 | **류지일**

경주국립공원 Gyeongju National Park



설경의 태백산 | **박정식**

태백산국립공원 Taebaeksan National Park



겨울 노송과 바위 | **엄성수**

북한산국립공원 Bukhansan National Park



영실추정 | **장택호**

한라산국립공원 Hallasan National Park

3

생명과 문명의 울림 :

사람과 동물 그리고 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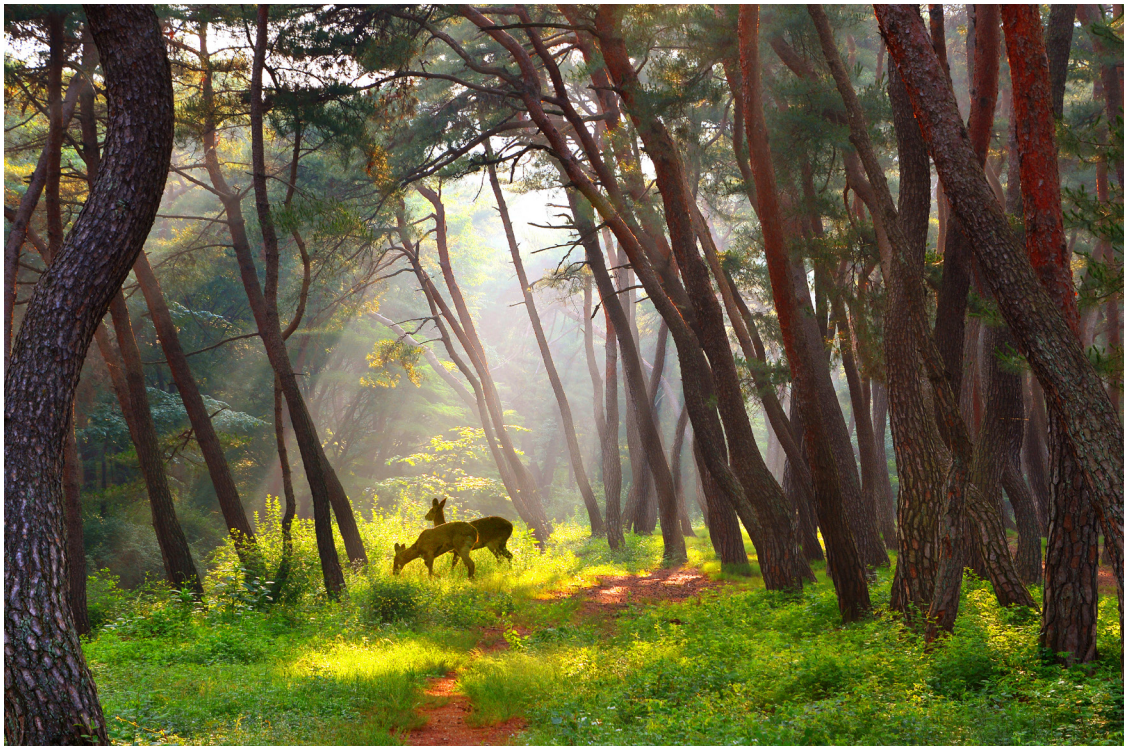
한국의 국립공원은 생명과 문명이 공존하는 거대한 자연의 무대이다. 공원 안에서 살아 숨 쉬는 동물과 곤충, 오랜 시간을 간직한 문화재, 자연의 품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자연과 인간, 과거와 현재가 서로의 울림에 귀 기울이며 만들어내는 조화를 보여준다.

'생명과 문명의 울림 – 사람과 동물 그리고 문화재'는 국립공원 속 생명의 세계로 열린다. 경주 삼릉 소나무 아래를 거니는 사슴, 한려해상 홍도의 투명한 바다를 유영하는 물고기들, 안개 낀 한라산 초원에서 고요히 서 있는 말의 모습 등은 생명의 서사를 전한다. 또한 작은 존재들의 세계 역시 놓치지 않는다. 치악산의 달팽이, 덕유산의 반딧불이, 계룡산의 가재 등은 생태계의 섬세한 결을 드러내며, 우리와 함께 이 땅의 시간을 살아가는 또 다른 존재들의 존귀함을 일깨운다. 전시는 문화의 기억으로 이어진다.

팔공산의 갓바위에 새겨진 기도의 간절함, 북한산의 북한산성이 지켜온 시간의 흔적, 태백산 천제단에 남은 하늘 제사의 전통, 지리산 화엄사와 가야산 해인사의 고요한 선율은 문명과 신앙이 자연과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가를 보여준다. 문화재들은 국립공원이 단순한 자연의 영역을 넘어, 인간 정신과 예술의 터전임을 증언한다.

마지막으로 전시는 사람의 세계를 선보인다. 북한산 계곡에서 물소리를 들으며 쉬어가는 사람들, 덕유산의 눈부신 겨울 능선을 오르는 등산객들, 내장산의 징검다리를 건너는 이들의 웃음, 치악산 정상에서 새해 해돋이를 맞는 인파, 태안 해변의 노을을 기다리는 군중, 이 모든 장면은 국립공원이 단지 경관의 장소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 그리고 행복의 공간임을 말해준다.

전시 작품은 자연이 들려주는 생명의 노래, 문화가 전하는 기억의 언어, 그리고 그 사이에서 쉼을 얻는 인간의 이야기를 함께 담았다. 자연과 문명, 동물과 인간이 한 울림 안에서 호흡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살아 있음'의 의미를 깨닫는다.



삼릉아침 | **김택수**

경주국립공원 Gyeongju National Park



안개낀 소나무밭 풍경 | **현홍영**

한라산국립공원 Hallasan National Park



남해 홍도의 바닷속 | **이상훈**

한려해상국립공원 Hallyeohaesang National Park



천제단 | **김미숙**

태백산국립공원 Taebaeksan National Park



화엄사 야경 | **신윤철**

지리산국립공원 Jirisan National Park



팔공산 갓바위 | **정철재**

팔공산국립공원 Palgongsan National Park



사람이 만든 눈꽃열차 | **김재현**

덕유산국립공원 Deogyusan National Park



계곡의 행락객 | **장영재**

북한산국립공원 Bukhansan National Park



치악산 해돋이 | **한동수**

치악산국립공원 Chiaksan National Park

찰나에서 영원으로 in 오송

National Park, Korea's Best Idea

발행처 국립공원공단, 충북문화재단

기획·편집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 충북문화재단 관광사업본부, ㈜사진예술

제작 디자인생선가게

사진 국립공원공단

* 본 책자에 실린 글과 사진은 국립공원공단, 충북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 KNPS CENTRAL REGIONAL H.Q. OFFICE

충북문화재단 Chungbuk Cultural Foundation

사진예술